책과 위대한 사회

Wallace E. Stegner.

현대는 책의 시대가 아니다. 책은 전파의 물결에 의해 오랫동안 북으로 부터 포류하고 있다. 그리고 사서뿐만 아니라 저자까지도 전파의 도전에 앞 보호색의 머리를 길러왔다.

● Wallacc Stegner는 1968. 5. 17일 Utah 도서관대학의 헌당식에서 이논문을 발표했다. 이 대학은 그에게 문학박사의 학위를 수여했는데 이것은 문학인으로서 그리고 교수로서의 그의 위대한 생애를 흠모하여 특히 인간정신의 지속적인 가치를 그린 그의 훌륭한 필치를 흠모하여 수여된 것이다.

수년전에 Saskatchewan에서 우리들은 괴로운 겨울을 보내곤 했는데 그때 말들은 긴 털로서 추위를 막고, 사향돼쥐들은 늪속에서 높이 집을 짓고 양들은 10월이 되어 북으로부터 이동을 시작할 때였다.

최근에는 문화가 우리에게 정신적 불모의 겨울을 보내도록 강요하는 징조가 나타났다.

우리는 Milton의 말대로, 양서는 가치있는 정신의 피와 같은 것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 고의로 저장되고 방부되어 진 것이라는 진리를 믿으면서 자라왔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전통적 지식이나 지혜 그리고 수사법이나 이것들을 전달하는 서적을 경시하는 듯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래서 68년도에 큰 도서관을 세우는 것은 내일 세계에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오늘 한그루의 나무를 심겠다는 철학자의 정신을 확신하는 완

고하고 염치없는 심념의 행위며, 이러한 사실은 나를 놀라게 한다.

현대는 책의 시대가 아니다. 책은 오랜동안을 메디아(Media)의 물결에 의해 북으로부터 표류해 왔다. 그리고 사서뿐만 아니라 저자까지도 보호색의 머리를 길러왔다.

소수의 미국시민만이 독서하며 독서하는 자들의 대다수가 비서적류를 읽으며 진짜 책들을 비서적 같이 취급한다.

어떤 것이든 인쇄될 수 있도록 한 종이 표지책의 혁명은 보통 잡지에서 보는 것과 같이 모든 원고를 인쇄시키고 자 하여왔다.

폐물을 짜 맞추는 미국인의 고안은 문학에 있어서도 작용한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결과나 논리성 그리고 전통이라는 말에서 의미하는 모든 뜻과 함께 Gutenberg신의 사망, 즉 인쇄의 멸망을 예언하는 Marschall Mcluhan 같은 자들이 항상 있다. 만약 당신이 머리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사용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독서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사서는 너무 적은 책과 너무 적은 독자때문에 괴로움을 받는게 아니라 이 양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괴로움을 받는 다는 사실에서 용서되어 ㅆ 수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만 출판되는 출판물 수도 일년에 25,000종류나 되는데, 어떻게 개개의 도서관들이 자기나라의 출판물에만 한정시킬 수 있겠는가?

오늘날 우리가 독서할 때는 세계 도처에서 출판되는 서적을 읽지 않을 수 없는데, 이러한 숫자는 수개의 요인들에 의해서 점점 늘어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교육받은 미국인의 관심에는 보잘것 없는 것들이거나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확신하고, 또 우리가 그것들을 모두 살만한 돈과 책을 꽂아둘 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 손 치드라도 여전히 선택이라는 중요한 문제가 남아있다. 당신은 그들을 모두 보관 할 수는 없다. 국회도서관에서 서가의 카드 하나를 가지고 미궁의 서고속에서 한권의 책을 찾아본 사람은 가위눌린것 같은 감정에 사로 잡힐 것이다.

그때 어떤책을 언제 던저 버릴까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급진적으로 발전하는 과학 즉 생물학은 놀랄만한 속도로 인쇄되어 몇개월

간의 논문들에서 추상한 것만도 전화번호부 크기만큼 된다.

그것들의 대부분은 그당시의 해에는 필요하지만 그다음 해에는 필요없이 된다. 여기서 문제는 지식을 영원히 저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간단히 저장하고 다음에 그것의 대부분을 버리는 일이다.

만약 우리가 선택과 장소 돈과 처분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다 해도 여전히 다시 수정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 이문제는 독자들이 증가하는데 따라서 증가할 것이다.

미국인의 15%만이 독서한다. 그러나 그 15%는 3천만에 해당하는 숫자다. 우리가 New York 시립도서관과 같은 대도시 도서관에서의 바쁜 활동을 관찰한다면, 우리는 사색적이며 조용하고 글씨나 지우고 아주 먼지투성이고 아주 협조적이라는 사서에 대한 우리의 사고가 변경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을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앞으로 아주 작은 책자 하나라도 그속에서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거대한 서가의 건설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이것만이 책의 보존이나 분류에 따르는 어려움이라면 아무도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들은 분포, 세밀화, 표준화된 목록정리, 기계화된 수정, 그리고 다른 수단들을 통해서 쉽사리 해결될 것이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완전히 해결될 수 없다 하드라도 그것들은 우리를 괴롭히지는 않을 것이다. 책을 수집하는 자들이 당면하는 보다 어려운 문제는 계속하여 책을 버려야 하며 책이 반영하고 있는 전통을 무시해야 하는 현대의 문화적 환경이다.

이러한 환경은, Mcluhan에 의해서 그려지고 사실상 찬양되었는데 그가 생각한 것과 같이, Mass Media의 기능일 것이다. 영상(image)의 도움에 의해 인쇄를 무시하고 귀의 도움으로 눈을 무시하게 되는 것은 아마 가능할 것이다. 영상(image)은 직접적이므로, 내용을 전달하는 언어와 같은 복잡한 상징적 체계는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귀도 역시 영상(image)만큼은 직접적이고, 계속해서 거기에 호소하고 있다. 우리는 책장이 없는 많은 미국인의

가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마도 텔레비존이나 라디오, 스트레오가 없는 가정은 거의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것의 일반적인 거부와 현재에 대한 강조, 과거에 대한 불신과 그의 생생한 발명과 함께 자발적이고 창조적이고 즉흥적인 것에 대한 신념, 즉 Media에 기반해서 자라난 세대는 한계와 불합리로 줄달음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확실히 미국인적인 것이었고, 사실상 전통적으로 동양국민과 다른 서양국민의 특징이다.

미국 예술원의 현재와 미래를 탐구하는 2천년대의 미래학 분과 위원리는 미국인은 역사적 감각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는 의심의 눈초리로 과거를 바라보지 만은 아니했고, 우리는 의지나 법률의 단순한 사실만으로 가장 격심한 사회적 변화를 이룩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부단한 개혁은 미국인에 있어서는 커피를 마시는 일과 마찬가지로 끊임없는 일이다.

우리는 파괴된 건물을 헐어 버리고 공장을 새로 지어온 만큼이나 도덕성을 확립하려고 노력해왔다. 현재의 불평분자들은 영국에서 홀랜드로 떠나서 홀랜드에서 미국으로 그리고 대서양 식민지에서 황야로 떠난 불평자들과 매우 유사하다. 그들은 그들의 전통을 거부함으로서 그것을 주장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의문과 반항의 전통이기 때문이다.

미국에 맨처음 이민한 청교도들의 정착지였든 헤이트아쉬버리 지역은 모든 유랑인들 뿐만 아니라, 마새츄세츠 만의 이민단의 고향도 된다. 이들의 비교는 미친짓같이 보이지만은 젊은 세대는 자신들 보다 조금 앞에 산 사람들보다도 더 역사를 존중하지 않는다. 내가 한 그룹의 학생들에게 내 개인의 역사서 "Wolf Willow"를 쓴 이유를 설명하려고 노력했을 때, "왜 당신은 당신이 태어난 전통이나 당신 조상들이 한 일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는가" "문제는 당신의 지금현재 상태가 아니냐?" 라는 질문을 받았다.

Now(지금) 이말은 젊은이에게 있어서는 wow(환호성)만큼이나 큰 의미를 가진다. 젊은 이에 있어서 이 두 단어는 때때로 전 세대의 대답을 포괄하는 것처럼 보인다.

텔레비죤의 가장 흥미있는 시간은 Jack Ruby가 Lee. H. Oswald를 쏘아 죽이는 장면인데 그 장면는 다른 어느것보다도 격렬하고 순간적인 자극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켰다.

현대 예술의 특징적인 형식은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된 것이 아니요 다만 참가함이요, 함께 즐기는 것이다.

음악가들은 침묵을 소리보다 찬양하며, 소음을 음악보다 좋아한다.

화가들은 계획해서 그림을 그리기 보다는 즉흥적으로 그리며, 어떤 기술이나 조작보다도 아주 순수한 무형식을 주장한다.

대중적인 예술가들은 실재의 사물을 아주 단순한 조직을 가진 예술구조로 바꾸거나, W. Morris가 암시한 바와 같이 변형시키는데 그 결과는 겉치레의 장식과는 거의 다르다.

그리고 Berlin 예술가들은 그들 자신을 "완전히 살아있는 전체적 예술작품"으로서 나타내지만, 그들 자신을 생물학적인, 역사적인 그리고 문화적 힘의 복잡한 궁극적 산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창조자나 생산자로서는 더구나 생각하지 아니한다. 그는 그자신을 우연한 산물로 생각하며, San Francisco에 있다해도 불만이 없을 것이다.

여기에 젊은이들이 과거에는 획득할 수 없었든 힘을 구세대로 부터 빼앗은 명백한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Media가 아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는 단순히 숫자적으로도 구세대를 압도하고 있고, 그들은 1870년대 이주해온 아이랜드인이 Boston Yankees를 이길수 있었든 것과 같이 투표수로서 구세대를 이길 수 있다. 그들은 다만 투표수로서 구세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구세대보다 많이 사고, 많이 행진하고, 많이 외치고, 일반적으로 우리를 조종한다.

광고자나 정치가들이 그들에게 아첨하며, 그들은 신에 대한 공포를 대학행정으로 해석하며, 부모나 정치에 도전한다.

47%의 아메리카인이 25세 이하다.

1970년에는 전인구의 반 이상이 될 것이다.

다수의 힘을 가진 후, 그들은 자연적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혼란이 심한 시대에 성년이 되는 세대와 역사에 관해서 부적합한 지식을 가지는 세대는 다수의 힘이 이상주의나 그 수행을 창조 해냈다는 것을 생각하기 싶다.

연장자의 잘못과 비겁 그리고 실패와 함께 그의 충고를 버리는 것도 쉬운 일이다.

30살 이상의 사람을 신용하지 않는 것이 개인의 독립을 선포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도덕의 절대규범으로 되었다.

우상파괴는 이제 어떤 전통적인 행위보다도 강하게 작용하며 젊은 세대의 외침은 때때로 신의 외침으로 잘못 생각되어 질 정도다.

투표수에서도 지고 무시되고 격멸받는 구세대는 이러한 젊은 세대의 혁명을 방관자의 입장에서—실망하고 아연하여—주시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로 부터 이익을 얻고 그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가장해서 젊은 세대의 생각과 히피족의 의상이나 머리형의 어떤 모양을 채택함으로서 그들에 참여하고자 노력한다.

나는 미국인의 대다수가 전혀 책을 읽지 않는다고 말했다.

30세 이상의 세대를 믿지않는 젊은 세대는, 종종 그들은 지적인 수준이 낮기 때문에 책을 읽되 연장자가 추천하는 책은 읽지 않는다.

그들은 반 전통적인 작품을 읽는다.

예를 들면, 선(Zen)에 관한 서적이나, 죽음에 관한 티벳트 서적의 인용물 혹은 비타협적인 현대식의 정신에 입각해서 쓰여진 서적—도덕적 타부, 관습적인 멋, 전통적인 기술과 때때로 전통의 억압을 잊게해주는—를 읽는다.

시간, 즉 질서의 전통적 수단은 유아론(唯我論)이나 마취된 의식의 동시성 속에 녹아버린다.

형식은 어떤 것도 의미하지 않는다. 찬양되어지는 것은 독자에게 나타나는 것이며, 이러한 일은 형식적인 수단에 의해서 보다는 비합리적 수단에 의해서 더욱 더 잘 행해 질 수 있다.

아시아 아프리카의 신비주의가 발생할때 희랍에는 합리주의가 일어났고, 그 당시에 이미 의미를 전달하도록 만들어진 단어들이 스토로보조명(Strobe-

lights)이나 아주 확대된 기타 (Over amflified guitars)에 대한 대용물로서 사용하게 되었다.

모든 사물 즉 예술, 의상, 생활방식, 성적습관, 즐거움, 대화 등의 멋은 그것의 고상함에, 충격을 주거나 위로할 수 있는 능력에, 그리고 황홀한 상태를 증진 시키는데 내포되어 있다.

Robrt Frost 와 같은 역사적 감각을 가진 구세대에게 생각나는 것 전부가, 새롭게 되는 새로운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구세대는 그러한 판단을 일단 보류해야 한다.

젊은 세대는 아마도 다른 세대만큼 훌륭하고 그 자신의 공헌을 할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과거의 모든 제도나 습관을 완전히 파괴하고 있다는 망상을 계속 가질 수는 없다.

그들은 역사를 재 발견해야 하며, 근본적인 개혁이나 파괴를 서두르는 전통과 조화를 갖지 않으면 않된다.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은 개인의 완전자유에 대한 예찬이 얼마나 불합리한가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른 개인이나 사회에 대한 고려없이 그 자신만의 일을 하는 무책임한 개인은 아무런 새로운 것도 아니며 생각할 수도 없다.

행동가는 위험하고 탄압적인 방법에 의해서 계속적이고 전체적인 개혁을 시도하지 아니한다. 오랫동안 추구되어온 무정부주의는 개인과 사회의 자살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Josiah Royce 가 언젠가 말한 바와 같이, 어떠한 위험도 언제나 사적이거나 개인적일 수만은 없고 어떠한 업적도 단순히 개인적일 수는 없다.

인간생활의 모든 면에서 우리를 구제해 주는 것은 St. Paul 이 이야기한 자선이며, 단합이며, 책임감이다.

Royce 가 말한 것과 같이 분리된 개인은 본질적으로 상실된 존재다.

이러한 것의 윤리적인 진리는 파울의 원죄의식 사상에 뿌리박고 있다. 이것은 역시 그러한 신념의 원래 창시자인 고대 남방 불교의 염세주의에 기본해 있다. 분리된 인간 생활의 본질은 Gotama Buddha 가 말한바와 같이, 행복에 대한 억제할 수 없는 욕망이요, 향락을 촉진시키는 욕망이요, 쾌락을

갈망하는 욕망이다.

우리가 만약 고도의 문화형태에 의해서 그렇게 분리된 개체를 길들이고자 한다면 우리는 단순히 그에게 Paul이 법률(The law)이라고 부른것 밖에 제시할 수 없다. 여기서 그는 그 제시된 법률이 그의 자의에 반대된다는 것을 알 것이다. 파울이 말한 것과 같이 죄는 재생한다.

붇다(Buddha)는 현대서 양의 추종자들과는 다르게 분리된 개체의 구제는 오로지 모든 욕망의 포기에 있다고 보았다.

우리 자신의 전통은 우리에게 조직적이고 원리적인 사회적 상호의존, 즉 파울의 "자선"으로서 문제를 보다 동적으로 해결하도록 요구한다.

그가 알고 있는것 보다도 더 많은 인간 유대가 탈락된 자들속에 남아있는데 이들은 이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고 이 이상을 원하지도 아니한다.

그가 인정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불완전한 사회구조를 개혁하여 완전한 사회적 구조를 건설하려고 하는 행동가들 사이에 살아 남아있다.

그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완전한 자유와 순수한 감정적 생활속에 자신을 해방시켰다고 믿는 히피족을 충동질 하고 있다.

기독교적 신념과 순결같은 사소한 일을 제의하고는 그는 성 Francis of Assisi의 희미한 복사에 불과하다.

그래서 전통의 대다수를 의심하고 거부하는 시간속에서 나마, 비서적(nonbook)의 특수성을 만들어 내고 부단한 교류를 개발시키고 희극책과 같이 Hamlet를 읽는 것은 아니지만, 12분만에 Hamlet를 읽는 빠른 독서 과정을 취급하는 위대한 도서관을 세운다는 것은 덕있는 일이다. Media가 빠르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기억이나 사상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것의 가장 사례깊은 프로그램은 공개적인 토론의 형식을 취하는 것인데 그 형식은 실로 우연적인 것으로서 결론이 없고 무궤도하다.

사상은 순간적인 것도 아니요, 시끄러운 것도 아니다. 그것은 Mcluhan이 찬양한 형식에서는 종족적인 것도 아니요 국지적인 것도 아니다. 사상은 고독과 고요, 과거나 기록된 인간 경험의 위대한 공통속에 가장 잘 번영한다.

기록된 경험은 우리가 그것의 어떤 면을 재 주장하기를 희망하느냐? 혹은

반대하느냐 하는데 있어 기본적인 것이다.

Robrt Frost가 말했듯이, 거인과 같이 우리는 항상 미래의 어디메인가를 향한 목적에 대한 진로를 잡기위해 미래에 대비해서 옛날의 경험을 항상 되씹고 있는 것이다.

웅장한 도서관이 Salt Lake시에 건립되는 것은, 그 사회의 정신적 지적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도 너무나 당연하다. 왜냐하면 미국의 어느곳에서도 사회정신이 보다 굳세지 못하고 전통에 대한 존경이 강하지 못하다.

Utah시민들이 여기에 위대한 사회를 건설하고자 열망하여 전진하는 사회로서 등장했다. 그리고 그들은 많은 미국시민들이 결코 갖지 못한, 혹은 이미 상실한 단합과 상호책임감의 덕을 되찾았다. 이 도시에서 나의 청년시절을 보낸 자로서 나는 이 도시가 방관자나 방랑자에게 제공한 사물에 대해서도 증명할수 있다. 안전은 독립만큼 큰 사회적 요구요, 안정은 변화만큼 기본적인 양상일 것이다.

왜냐하면 사실은, 도전하고 위태롭게 하는 것이 젊은이들의 필요라면, 구세대 자신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보존보다도 다른 어떤 것을 순간적으로 원하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보전하는 것이 구세대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는 의지와 전통의 장점을 고수하려는 의지 없이는 어떠한 사회도 건전하지 못하다. 이것은 어떤 한 경향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의 위대한 전통으로서 일컬어 질 수 있는 양자 사이의 변함없이 팽팽한 긴장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우리는 확실히 변화하려는 의지에 의지할지 모른다.

변화는 우리 문명의 힘중의 하나요, 내가 이미 말했듯이 역사는 반항에 의해서 유지되어 왔다.

우리가 아뭇튼 보다 적게 갖고 있는 것은-아마도 근래에는 위험스러울 정도로 적게-우리의 선조들이 좋고 실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들을 고수하려는 의지다. 전통의 고수는 개혁과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하다.

동물생태 학자인 Konrad Lorenz는 개인적 기호, 사랑, 우정, 개체의 사실까지도 지구상에서는 천성적으로 공격의 무거운 짐을 감당하는 종족에서만 생겨났다고 한다.

표유동물과 마찬가지로 물고기, 도마뱀, 새의 종류에서도 정확히는 사랑은 집합된 증오로서 발생하는데, 이 증오는 그렇지 않으면 한쪽으로 하여금 다른 한쪽을 멸망시키도록 하거나, 그 종족이 자살을 하도록 만들고야 말 것이다. 이러한 성정의 결합을 이루지 못하는 종에서는, —이것은 격렬하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공격은 행하지 않는 종족을 의미하는데—개체는 없고 오직 물고기와 같은 똑같은 멤버들로 구성된 통일체가 있을 뿐이다.

우리가 전통이나 사회에서 떨어져 나갔을때, 그리고 아마도 이러한 결합에 대해서 어떤 건설적인 적의를 가지지 않을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때 우리는 언어도 가질수 없고, 역사도 없고, 과학, 전설, 신화, 관습, 종교, 예술도 특수한 기억도 가질 수 없다.

그러나 공포나 공격에 대해서 짜 맞춘 감정이 동료와 젊은이들의 보호의 요구에 조절되는 순간,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에서 인간의 사회를, 그것를 다른 이름으로 표현하자면 신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회원의 자격에 의해서 결속되고 또 해방되는 것이다.

그것은 아마 나쁜 인간학인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Utah절벽위 황토 흙속에 원시인에 의해서 그려진 손자욱이 그들의 동시적으로 결합된 동일성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다. 그리고 만약 그들의 자손들이 그들의 가족이나 종족의 무자비한 지배로부터 탈출해 나와, 그들 자신의 손으로 황토를 파서 그들의 손과 힘이 그 아버지의 것보다 크고 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들 자신의 표식을 찍는다면 그것이 아마 그런 것일지도 모른다.

그것은 아마도 그 선조의 것보다 클 것이다.

그러나 그 선조의 그림을 그곳에 최초의 것으로서 그리고 표준으로서 가지는 것이 좋다. 그것은 바로 도서관에 관한 이야기다. 나에게 있어서 도서관은 어떤 문화의 가장 고상한 행위중의 하나로서 보인다.

즉 그것은 여태껏 존재해온 것의 측도요,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암시며, 반대자도 참가해야 하는 우리의 목적에 대한 시금석이며, 인류가 지혜롭게 생존해 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생존할 것이라는 확신이다.

<李 漢 龜 역>